

**공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고  
공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임**

**3/09 월**

**엡 2:4**  
4 그러나 공홀이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 9:13**  
13 여러분은 가서 '내가 공홀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마 5:7**  
7 공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 67:1**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셀라  
**눅 1:78-79**  
78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공홀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눅 15:20-24**  
20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21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22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겹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23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24 왜냐하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

**3/10 화**

**롬 9:15-16, 23**  
1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공홀히 여길 사람을 공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16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23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공홀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엡 2:3-6**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생각의 욕구대로 행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4 그러나 공홀이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5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6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사 55:6**  
6 찾을 수 있을 때에 여호와를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렘 29:13**  
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또 발견할 것이다.

**3/11 수**

**롬 9:18, 23**  
18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홀히 여기실 사람을 공홀히 여기시고, 고집스러워지게 하실 사람을 고집스러워지게 하십니다.  
23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공홀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엡 1:4-5, 17-18**  
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며

**롬 11:33-36**

**33** 오,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의 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34**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 있거나,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 있습니까?

**35** 아니면 누가 먼저 주님께 드린 적 있어 돌려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36** 왜냐하면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눈먼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47**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48** 여러 사람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49**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십시오.”라고 하시니, 그들이 그 눈먼 이를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대를 부르십니다.”라고 하자,  
**50** 그가 자기 걸음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왔다.  
**51**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십니까?”라고 하시니, 그 눈먼 이가 말씀드렸다. “라보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52**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십시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3/13 금**

**마 5:7**

**7**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딤후 1:16-18**

**16**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주 나를 상쾌하게 하여 힘을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17** 오히려 그는 로마에 와서 나를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18**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베소에서 얼마나 여러 방면으로 나를 섬겼는지는 그대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마 7:12**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위하여 해 주기를 남들에게 바라는 대로, 여러분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율법이며 신언서입니다.

**눅 10:30, 33-37**

**30**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아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반쯤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가 버렸습니다.

**33**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다가가 그의 상처를 싸매며 기름과 포도주를 부은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으며,

**35** 이튿날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얼마가 더 들든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36** 그대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37** 그러자 그가 “그에게 긍휼을 베풀 사람입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도 가서, 이와 같이 하십시오.”

**3/12 목**

**히 2:17**

**17**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히 4:15-16**

**15**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느낌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막 10:46-52**

**46**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들어갔다. 그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3/14 토****딤후 1:2**

2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약 2:12-13**

12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을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13 왜냐하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롬 14:10**

10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빌 2:12-15**

12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14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15 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딤후 3:4-6**

4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5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6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3/15 주일****시 145:1-4, 7-10**

1 오, 저의 하나님, 저의 왕이시여! 저는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무궁히  
찬양하렵니다.  
2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무궁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3 여호와와는 위대하시어 크게 찬양을 받으실  
분 그분의 위대성은 측량할 길 없으라.  
4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칭송하며 주님의 능력 있는 행동들을  
선포할 것입니다.  
7 그들은 주님의 크신 선을 기억하고 말해  
내며 주님의 의를 기뻐 노래할 것입니다.  
8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애가 풍성한 분.  
9 여호와와는 모든 것에 선하시며 그분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  
10 오, 여호와님!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신실한 이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Hymn: 26

**Further Reading:**

*CWWN*, vol. 57, "The Resumption of  
Watchman Nee's Ministry," ch. 1